

미국이여 깨어나라…〈국가 기도의 날〉

남가주 한인들 함께 기도

5월 5일(목) 오후 7시 30분

은혜한인교회에서

올해도 남가주 한인들이 미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다.

매년 5월 첫째 목요일에 美 전역에서 열리는 '국가 기도의 날(National Day of Prayer)'을 맞이해 한인 교계는 오렌지카운티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연합기도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제65회를 맞이한 '국가 기도의 날'의 주제는 "Wake Up America(미국이여 깨어나라)"이며 주제 성구는 이사야서 58장 1절의 앞부분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 같이 높여"(개역개정)란 부분만 주제 성구로 채택했다.

'국가 기도의 날'에 한인들도 참여함을 알리기 위해 열린 14일 기자회견에서 한인 교계 지도자들은 미국의 영적 위기를 언급하며 회개와 기도를 촉구했다. '국가 기도의 날' 본부는 이사야서 58장 1절 앞부분만 주제 성구로 뽑았지만



지난 2015년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렸던 제64회 '국가 기도의 날' 행사에서 미국을 위해 기도하는 한인들.

이날 한인들이 배부한 보도자료와 포스터에는 58장 1절 전문을 주제 성구로 소개하고 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5월 5일 오후 7시 30분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리는 행사는 예배와 기도회로 나뉘어 진행된다. 남가주 지역 선출직 정치인과 공무원들을 위한 축복기도를 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국가 기도의 날'은 1863년에 이브리햄 링컨 대통령이 필요성을 제기한 후, 1952년 의회의 결의에 따라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서명해 법으로 제정됐다. 무신론자들에게 소송을 당해 2010년 위헌 판결을 받기도 했지만, 2011년 항소법원이 이를 뒤집으며 극적으로 부활했다.

한편 이 한인 기도회는 OC한인 목사회·기독교평신도연합회·OC 장로협의회·여성목사회·원로목사회, 순 무브먼트, 미주성시화운동본부, CMF, 미스바기도운동, 파이어크루세이드, HYM, 지저스홀릭 무브먼트가 주최하고 JAMA, OC교협,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가 주관한다. 김준형 기자

“오늘 하루 나도 장애체험을”

샬롬장애인선교회 '장애인체험' 열고…장애인에 대한 편견 없어야

4월 20일 본국의 제36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샬롬장애인선교회(대표 박모세 목사)가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이 '장애인체험' 행사는 12일 샬롬장애인선교회 선교관 주차장에서 30여 명의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교육 등을 실시하며 함께 치러졌다.

이 선교회 대표인 박 목사는 우선 장애에 관한 내용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장애의 개념, 실태에 관한 교육을 진행한 후에

시각장애인체험, 지체장애인체험 등 실질적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장애를 체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선 '체험교육'을 통해 장애인들이 실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을 직접 깨닫게 한다는 취지다.

우선 시각장애인체험은 안대를 착용하고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이용하여 바로 걷기, 장애물 지나기 등 다양한 체험을 실시하였다.

지체장애인체험의 경우는 클러치를 사용하거나 직접 휠체어를 타고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체험을



샬롬장애인선교회가 본국의 '제3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12일 이 선교회 선교관에서 장애체험 행사를 열었다.

하도록 하였다.

이번 행사를 주최하게 된 동기에 대해 박 목사는 "교육과 장애체험 행사를 통하여 조금이나마 장

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싶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

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열게 되었다고 했다.

한편 이 선교회는 설립이래 처음으로 구입한 램프밴(2000 Dodge, 약 12만 마일 운행) 기증식도 가졌다.

이 램프밴은 그 필요성이 가장 시급하고도 절실한 사지마비장애인 최유성 집사 가정에게 이달 초 기증됐다.

최 집사는 16세이던 1978년에 서울 모 여고 기계체조 선수로서 2단 평행봉에서 연습하던 중 떨어져 경추에 심한 손상을 입고 지난 38년간 전신마비 장애인으로 살아왔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온 가족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귀한 믿음의 장인이기도 하다.

[자료제공: 샬롬장애인선교회]

“예수영맥을 따라 광야로 나선 순례자들의”
기독교 대한감리회 **빈들교회**
담임목사 : 김 용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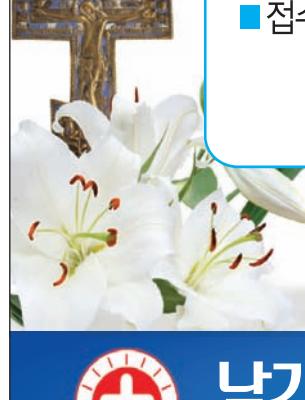
■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관상기도회(금) 오후 8:00
32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818)518-0033

아이비 유학
Shelby Kwon
Director
적성검사를 통한 진로 선택의 지름길
재능 계발·토랜스, 얼바인 Class
(Verbal, Visual, Logical, Creative, Physical, Emotional)
3·7·21 재능캠프
LA 500 Shatto Place, Suite 200
Torrance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Irvine 17702 Cowan, Irvine, CA 92614
USA Tel:(951) 383-5583
Tel:(949) 329-8222
Email:shelby.moon65@gmail.com
www.MyIvydream.com

임시총회 및 회장 입후보 공고

[저희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지난 46차 정기총회에서 회장을 선임하지 못하고 추후 임시총회를 열어 46대 회장을 선임하기로 총회에서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관에 따라 46대 공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장 입후보자를 공고하며, 총회 결의대로 임시 총회소집을 공고합니다.]

많은 뜻있는 목사님들의 회장지원과 총회참석을 소망합니다.



■ 회장입후보등록: 2016년 4월 29일 오후 5시 마감

■ 접수처: **남가주교협 사무실**

981 S. Western Ave. Suite 401, LA, CA 90006
T.323-735-3000

■ 임시총회 일시 : 2016년 5월 9일 오전 10시 30분

■ 임시총회 장소 : **나성소망교회**

4561 W. Pico Blvd., LA, CA 90019
T. (323) 937-0961 / (213) 550-7377

수석 부 회장 : 김 재 욜

공 천 위 원 장 : 한 기 형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 in Southern California

981 S. Western Ave., Suite 401, Los Angeles, CA 90006

Tel: (323) 735-3000 Fax: (323)735-3111 www.namgajukidukgyo.org

나부터 달라져야

예배소서 4:17-32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인류의 조상 아담이 창조되어지면서부터 엿새 동안 하나님께 하늘과 땅과 바다 속의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위임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놀라운 특권은 깨닫고 보면 우주 전체에 있는 만물과 지상과 수중에 있는 모든 피조물, 이 모든 것들을 인간들에게 주시기 위한 선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귀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의 한 부분을 우리를 속에 파생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하보다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이 파생되어져서 피조물이 된 인간들이 그 영으로 지옥 가는 것이 너무나 괴로우시기 때문에 그 영들을 하늘나라로 되돌리시기 위하여 아들을 희생양으로 십자가 대속의 죽임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1. 이전에는 영이라는 것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살았고 그저 속물근성만으로 살아왔기도 합니다. 속물근성이라는 것은 물질에 예속되어 있다는 뿐만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칼 마스라는 사람은 러시아를 통해서 볼세비키 혁명을 일으키며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세계를 공산화하겠다고 시작할 때 유물사관을 내세웠습니다. 유물사관은(唯으로지(유) 物질(물)) 오로지 물질이 우리에게 천국을 만들어주는 최고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장차 망할 성이라고 해서 장망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더 빠르고 물질 기대와 허욕에 시간과 정욕을 아낌없이 쏟아 부으면서 그 세상에서 무엇을 얻어 보자고 하는 것은 천국소망을 가꾸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좋아하는 하늘 시민권자는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유익한 이득이 되게 내버려 두실리가 없습니다. 롯의 아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롯의 아내는 천사가 분명히 일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의 도시 소돔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 하실 때에 천둥 번개 소리가 나더라도 너는 절대로 뒤틀어보지 말고 소알 평지로 갈 때에 앞만 보고 가라고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에게 당부를 했었고, 그 당부를 받고 이제 소알 평지를 향해 달려가는데 뒤에서 번개 불이 번쩍이고 천둥소리와 천지 개벽하는 소리에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 보다 세상에 두고 가는 물질에 대한 애착이 너무나 간절해서 명령을 거역하고 뒤를 바라보다가 그 즉시 선채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세상을

비라보고, 물질적인 기대심리를 버리지 못해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허망한 것을 행하지 말라는 것은 그것을 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허망한 것을 위하여 시간과 정욕을 아낌없이 집중하는 인생은 18절과 같은 사람이 된다고 하십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총명은 옳고 그른 것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명이 어두워져서 어느 것이 귀하고 어느 것이 더 무익하고 비천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가운데 무지(無知)함과 저희 마음이 화인 맞은 심령이라 길바닥 같은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지적으로나 또 결과적으로 윤리적 도의적으로 내가 해서 안될 짓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전혀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감동도 회개도 없고 변화도 없이 길바닥에다가 금덩어리를 던져 주어도 길바닥은 그것이 새똥인지 금덩어리인지 전혀 분별도 못하고 가치도 모르고 반응도 없고 감각도 없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굳어진 심령에 아무리 생명의 보배로운 진리 말씀이 떨어져도 전혀 귀한 줄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의 사람입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방임(放擧을 방임할 길임)이라는 것은 방탕에다 자기를 내던져버린 것입니다. 둘대로 되라는 것입니다.

2.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목자를 하나님으로서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심으로 세워지고 오늘에 이르도록 성령님이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이끌어 오신 성은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성은교회는 정통보수신학과 영감적 체질신앙이 조화를 이루어서 가장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증거 되어져 왔습니다. 그렇게 진짜 예수님을 정확하게 소개받고 그분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심을 받았다고 하면 22절과 같이 되어야한다고 하십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죄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타락한 인간의 자기 의지적 결단이나 노력으로 거듭날 수는 절대로 없다는 것이고 택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성령을 보내시어서 성령이 그에게 불가항력적 은혜로 집중

적인 역사를 하실 때에 자기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의한 계획속에 성령이 불같은 역사를 말미암아 피동적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절대주의로 사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화장을 위해 구제하고 전도하고 교회봉사하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 교회적 사명에 앞장서게 되고 목자의 목회에도 적극적인 이해와 아낌없는 정성으로 손발 잘 맞추어서 협력 봉사 할 수 있도록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새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재창조의 주인공이 되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거듭난 사람은 25절부터의 말씀처럼 살라고 하십니다. 저질스럽고, 속되고, 악한 말은 절대로 안 써야 합니다. 상스럽고 더러운 말은 입 밖으로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 덕을 세운다는 것은 영적 유익을 위하여 필요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어디에서든지 한 샘의 단물과 쓴물을 같이 낼 수는 없습니다.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로 은혜 끼치는 말로 덕을 세워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의 언어습관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3. 우리 구원의 보증은 내가 모시고 있는 성령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두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이 다 보시고 지키시고 듣고 계십니다. 거듭난 성도의 삶을 통하여 생활현장에서 확실히 인격 수양과 언어 예절과 행동목표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받아들이 섬길려는 의도로 일치하는 처신이 되어진다면 성령이 그 사람을 근심하실 일이 없을 것입니다.

너희는 노하고 분내고 떠들고 남 잘하는 것 훼방하고 모든 악한 의도까지 함께 다 버

리라 하셨습니다. 성도 상호간에 인자하게 하라는 말은 서로를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것은 존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오른 팔로 쓰실 사람을 마귀가 시기하고 미워, 질투하고 죽이려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악을 쓰고 훼방해 올 수 밖에 없도록 소망적인 믿음이 될 때에 더 잘 믿고, 잘 섬기기 위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 몸부림칠 때 대적과 행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말하자면, 애타게 자존심을 다 버려가면서 속마음을 다 비우고 전도를 하려고 여러 해 집중적으로 엄청 투자하고 애를 썼는데도 전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진리의 교회로 부르셔서 성령으로 집중적인 조명과 계시로 역사하셔서 불가항력적 은혜를 주심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심이 감사하게 생각되어진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신 것같이 성도 상호간에도 먼저 용서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점수를 따는 일입니다.

신자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을 잊지 말고 하나님과 가치관을 일치시켜서 이 영적가치 제일주의를 지켜서 믿음있는 자로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영적성과를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이뤄 드리기 위해 애써 보시기 바랍니다.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 평가할 때 심령과 육신이 강건케 되고 우리의 성김은 항상 남아 돌아가도록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한국 신문 설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한국 선교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해외 선교 설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워싱턴DC.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CTS TV 수요일 서부오후 4시30분/동부오후 7시30분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허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미국 신문 설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FM91.5(SCA) 7시30분	화요일 오후 7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금요일 오후 2시30분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https://www.youtube.com)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 성은복음선교회

회소식 Super store 푸엔테힐스에서만 드리는 중·소형 교회 목회자를 위한 자동차 특별 판매 '패스터 패키지'(Pastor Package)

크레딧이 없거나 나빠도 OK!
중·소형 목회자를 위한 원가세일!



차종 : 엘란트라, 소나타, 중고차
구입서류 : 현재 목회하고 있는 교회 주보

P-H 푸엔테힐스 현대 Tel. (213)276-8959(찰리 정)
Puente Hills Hyundai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Dealer Tel. 1-880-850-20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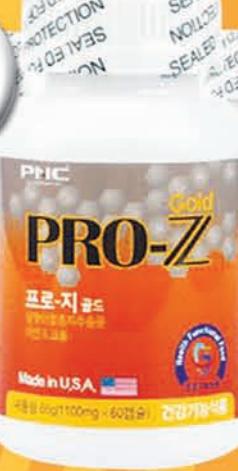


찰리 정

100%
천연성분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PRO-Z
GOLDSpecial
Price

✓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송해선생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프로지골드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있는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약들은 천연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부종, 신장부종, 간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유수의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송문기 박사팀은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하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인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 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아연이 당대사와 밀접하다면, 왜 아연으로 만든 당뇨약은 없나요?

아연은 특성상 섭취 시 인체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고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굴이나 소고기 등에 아연이 존재하지만, 섭취 후 3~4시간이면 소변으로 배출되고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연이 췌장 세포 기능 복원이나, 근육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포내 아연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야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계는 지금까지 아연 흡수율 제고 물질이나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송문기 박사의 신합성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을 칼레이트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송문기 박사와 연구팀은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이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하고 당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PRO-Z

한국 50만병 판매 SALE

1병 \$69 + tax 3병 \$179 + tax 6병 \$342 + tax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213.434.1170
www.prozusa.com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NCCK 2016년 장애인주일 연합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NCCK

“역사적 신앙의 통일성과 표준 회복해야”

한국장로교회 '종교개혁 세미나' 개최…신앙고백의 중요성과 필요성 고찰해

정통 신앙고백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고찰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예수그리스도바르게전하기운동학술원(원장 양희종 박사)은 18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308호에서 '오늘날 왜 정통적인 신앙고백이 중요하며 필요한가?(신앙고백의 역사적 고찰과 현대주의적 의미)'라는 주제로 제2회 종교개혁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일웅 박사(총신대 전 총장)가 '역사적인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 -하이델베르크요리문답서와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를 통하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매진하기를 권고한다'며 "그렇게 될 때 한국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든든한 21세기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리라 확신한다. 이러한 일이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어가는 후예들로서 마땅한 일이며, 또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교회의 성숙한 신앙적 태도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신앙고백은 원래 교회 공동체의 하나님을 향한 한목소리로서

의 신앙고백 계보와 현대적 의미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특히 정일웅 박사는 "이 시대는 다시 한 번 역사적인 요리문답교육의 가치를 새롭게 인지하고, 특히 하이델베르크요리문답서와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를 통하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매진하기를 권고한다"며 "그렇게 될 때 한국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든든한 21세기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리라 확신한다. 이러한 일이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어가는 후예들로서 마땅한 일이며, 또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교회의 성숙한 신앙적 태도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신앙고백은 원래 교회 공동체의 하나님을 향한 한목소리로서

찬양의 의미를 가진 것이며, 동시에 다른 목소리(이단)를 구별하는 특성을 가진 것이었다"며 "이에 걸맞게 역사적인 요리문답교육은 교회 공동체의 신앙고백을 목표로 신앙 교리의 체계로 만들어진 신앙고백서에 근거하여 새 신자와 청소년과 기존 신자의 신앙을 깨우는, 신앙의 지적인 능력을 전수하는 일과 신앙관을 세우는 일과 성경 해석의 기본적인 열쇠를 제공하는 일, 그리고 신앙의 표준과 통일성을 견지하는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박사는 "지금 심각한 교파 분열과 과도한 교회 성장의 치열한 경쟁 목표로 인하여 위기에 처한 한국장로교회를 생각하면, 교회 연대·연합과 교파 통합을 향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이대웅 기자

“한국교회 현실을 말하다”

한국교회와 한국사회 소통을 위한…목회사회학회 창립기념 강연회



조성돈 교수
실천신대 목회사회학

19일 저녁 도림감리교회에서 "한국교회와 한국사회 소통을 위한…목회사회학회 창립기념 강연회"가 개최된다. 이를 알리는 기념세미나가 "한국교회, 현실을 말하다!"란 주제로 열렸다.

"시민사회에서 정의를 위한 교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발표한 정재영 교수(실천신대 종교사회학)는 "우리 사회에서 정의롭지 못한 현상들이 빈발하는 것이 정의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정의가 현실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지적하고,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정의의 한 측면으로서 시민적 연대에 주목했다.

정 교수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공론의 장인 시민 사회 영역에서 자기중심적인 개인들을 연대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개인들을 연대하게 하는 힘은 규범"이라 지적하고, "개인들 안에 내재하는 이기심을 억제하고 시민 도덕심으로 결속하도록 해야한다"면서 "도덕이 살아있는 사회에서는 소수에 대한 배려와 약자 보호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조성돈 교수(실천신대 목회사회학)는 "시민사회 속의 기독교회"란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욕심에 터된 집단과 이기의 굴레를 초월(박



정재영 교수
실천신대 종교사회학

영신: 35) 할 수 있는 가능성은 공동체에 의지된 시민사회의 형성이라고 믿고 있으며 그 것은 교회라고 하는 기독교의 사회적 형체가 감당하여야 할

이 시대의 소명이라고 믿는다"면서 "한국사회에서 기독교는 하나님 이 허락하여 주신 다양한 통로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된 우리 교인들을 바른 민주시민으로 세워나가는 일들을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의 대망을 맛보아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이수민 기자

“교인들과 국민들의 신뢰 얻을 것”

해재중재원 8주년 감사예배…3대원장 박재윤 전 대법관 취임



박재윤 장로
3대 해재중재원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가 17일 서울 마포구 하늘나루감리교회에서 '2016년 장애인주일 연합예배'를 드렸다.

이날 이계윤(장애인소위원회 위원)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장애'(요 20:19~29)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역설했다.

그는 그러나 "한국교회엔 지체장애인을 위한 시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서비스, 언어 장애인을 위한 수화 서비스 등이 미비하다"며 "한국교회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엄연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교회 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곳은 200여 곳에 불과하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공간에서 함께하는 공동체가 완성돼야 한다.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NCCK 정의·평화위원회 장애인 소위원회 주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100여 명이 함께 드린 예배에선 수화 통역사가 손짓으로 예배를 공동으로 인도했고, 활체어 장애인 등을 배려한 시설이 설치되기도 했다.

NCCK는 "손상이 장애가 되고 장애가 불이익을 가져오는 비정서적인 현실을 극복하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시는 하늘의 뜻을 외면하는 모든 악한 생각과 행위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NCCK는 1989년 제38회 총회에서 장애인주일을 기기로 결의한 뒤 매년 장애인의 날(4월 20일)이 포함되어 있는 주일을 정해 장애인 주일 연합예배를 드리고 있다.

김규진 기자

2016 미주기독대학박람회

<p>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p>	<p>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ABIEE 정회원, ATS 종회원 •기독교대학원, 유통학석사(Do),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방정성 승인 SEVIS-202 자체 발행 •인수 후 미국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입학상담 김은숙 목사 T213-407-4569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류종길 박사, 이사장 : 김광희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 643-0301 Fax: (323) 643-0302 www.aeu.edu/info@aeu.edu ceo@aeumaster@gmail.com</p>	<p>미주대한신학대학 개척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충족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중 앙상,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쉽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p>	<p>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총 목사고시, 인수기능) I-20빌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p>
<p>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지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 #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p>	<p>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증 특전 : 2027 발행/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 (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p>	<p>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박지영 박사 부총장: 브렌트 프赖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p>	<p>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IE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p>
<p>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p>	<p>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p>	<p>FULLER THEOLOGICAL SEMINARY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p>	<p>그레이스 미션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 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p>



RCA 연합부흥성회가 8일부터 10일까지 뉴욕신광교회에서 '양화진'이라는 주제로 개최, 초기 한국교회 선교사들의 희생을 조명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 선교뿌리 찾기 큰 호응”

RCA연합부흥회…한국 초기 선교사들 조명

RCA 한인교회협의회(회장 나영애 목사)가 8일부터 10일까지 '양화진'이라는 주제로 신광교회에서 춘계 연합부흥성회를 열고 한국인보다 더욱 한국을 사랑했던 초기 한국교회 선교사들의 삶을 집중 조명, 큰 호응을 얻었다.

RCA 한인교회들은 매년 봄철이 되면 유명 강사를 초청한 가운데 부흥성회를 열고 회원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신앙을 다져오고 있다.

올해는 특별히 뉴브런스워신학대학원 종교·선교사상사 부교수인 김진홍 교수를 초청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를 비롯한 초기 한국교회 선교사들의 헌신된 삶을 집중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진홍 교수는 현재 뉴브런스워신학대학원 산하 언더우드글로벌기독교센터 디렉터도 함께 맡고 있다.

이번 부흥성회에서 김진홍 교수는 언더우드 선교사 뿐만 아니라 아펜젤러 선교사와 헤론 선교사, 허버트 선교사 등 현재 양화진에 안장돼 있는 초기 한국교회 선교사들이 한국에 보여준 놀라운 사랑과 선교 열정을 전했다.

김진홍 교수는 먼저 초기 한국교회 선교사들의 삶과 관련, “안정된 삶의 보금자



리를 떠나 100년도 전에 모든 것이 낙후돼 있던 낯선 이 땅의 땅에 와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까지 묻었던 그들의 삶에 대해 우리가 감사함을 알아야 한다”면서 “우리는 그 고마운 사랑, 위대한 사랑을 잊어서는 안되며 그들이 전해준 사랑과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한인 디아스포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홍 교수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믿고 섬겼듯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등 선교사들은 그 척박했던 당시의 조선을 젖과 꿀이 흐르는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받아들였다”면서 “미국에서 이민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 뉴욕 플러싱이 우리의 가나안이며 여기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은 여기를 제2의 양화진으로 여기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힘쓰는 자들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김대원 기자



지난해 워싱턴DC에서 제1회 사모 수련회가 열렸던 모습.

“개신교수도원수도회 사모 수련회”

잉글우드 자체 건물서 첫 진행…주강사 김금화 하버드대 교목

이민사회 내의 올바른 영성의 방향을 제시하고 영적 쉼터 역할을 해오고 있는 개신교수도원수도회(원장 김창길 목사, 부원장 김에스더 목사)가 오는 24일 오후 5시부터 26일 오후 2시까지 뉴저지 개신교수도원수도회 건물에서 제2회 '사모 수련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제1회 사모 수련회를 통해 이민 교회 사모들의 영적인 쉼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했던 개신교수도원수도회는 올해도 사모 수련회를 통해 이민교회 사모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귀한 시간을 마련했다.

특히 올해 사모 수련회는 올해 초 새롭게 자리잡은 개신교수도원수도회 자체 건물에서 진행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안락함이 돋보이는 개신교수도원수도회 새 보금자리는 3층 건물로 예배실과 사무실을 비롯해 말씀방과 기도방, 기숙사 및 샤워시설 등이 갖춰져 있다.

개신교수도원수도회는 지난해 말 임글우드 지역에 위치한 0.65에이커 부지의 106년 된 건물을 극적으로 구입, 구입 절차와 수리 과정에 이르기까지 매 순간 많은 간증들을 남기며 올해 초 입주했다. 이전된 개신교수도원수도회는 현재 영적인 쉼과 회복을 원하는 이들에게 안식처로 활용되며 훌륭한 기독교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다.

올해 사모수련회는 이전된 건물의 수용인원을 고려해 10명만 선착순으로 모집 중에 있다.

이번 사모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개신교수도원수도회 부원장 김에스더 사모는 “지난해 30여 명의 사모들이 참석해 서

로의 사정을 나누고 위로 받는 시간을 가졌다”면서 “올해는 비록 많은 분들을 모시지는 못하지만 서로 깊은 대화 속에서 치유 받고 사모의 자리가 얼마나 큰 영적 축복의 자리인가를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련회 주강사는 김금화 하버드대 교목과 김에스더 목사가 참여해 ‘사모의 소명’, ‘사모의 존재감’, ‘이민교회 사모 역할론’ 등을 주제로 강연한다. 또 故 김권석 목사의 아내이자 사론유치원 원장인 김옥순 사모가 간증하며, 이효연 목사가 사모의 정신건강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주강사 김금화 교목은 김에스더 목사와 함께 서울대 문리대를 다니던 시절 평생 헌신을 다짐하며 선교의 꿈을 키웠던 영적인 동역자로 하버드대학교 교목으로 오랜 기간 섬기고 있으며 골든게이트와 고든코넬에서 신학과 목회학을 전공했다. 김에스더 목사는 프린스턴과 예일, 드류에서 신학과 목회학을 전공했다.

특히 제자훈련과 선교를 전공으로 했던 김금화 교목은 하버드대학교 뿐만 아니라 MIT와 브라운대학 등 명문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말씀훈련과 제자훈련을 진행했고, 선교사도 다수 파송하면서 해외에 많은 교회들을 세워온 인물로 사모들에게 목회자 사모의 역할에 대한 강의와 더불어 생생한 선교현장의 간증을 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등록문의는 한혜림 간사 (201) 359-4186, hyelimhan20@gmail.com/ 이효연 목사 (201) 669-9979(c) Hyolee825@gmail.com로 하면 된다.

김대원 기자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M 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점은이 예배 오후 2:22
주일 바침술학교 & 토요새벽 - 12기와 버논트 코너
주중세벽 -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연제선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20 수요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학생, 청년부 예배 오전 11:20

LA 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민2세를 책임지며, 이민가정을 치료하여, 선교영광을 순종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김기섭 담임목사

연제선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장태원 담임목사

LA 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장태원 담임목사

한천영 담임목사

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 (월~토)
저녁 오후 7:30 (화, 목, 금)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978 S. Hoover St. #203, LA, CA 90006
T. (213) 272-6031

엘리야 김 담임목사

진유철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한기형 담임목사

나성동산교회

온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한기형 담임목사

서건오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328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383-2602 / opendoor.org

박현성 담임목사

김경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9:00 유초등부 중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나리와 믿음을 위한 기도회 주일 오후 1:30
수요집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모금 6:00 (토)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 (213) 598-0191

정우성 담임목사

김경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조인수 담임목사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민의 소원을 이루어 예우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조인수 담임목사

김영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9:00 새벽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김요섭 담임목사

열매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3960 Wilshire Blvd. #505, Los Angeles, CA 90010
(월~화 / 월~화)

김요섭 담임목사

정장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9:00 새벽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전 10:00

신승호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신승호 담임목사

류종길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화)

민종기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민종기 담임목사

곽부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9:00 새벽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이명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7-1700 /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이명수 담임목사

류종길 담임목사



터키 버사에 있는 프랑스교회 문화센터 내부 모습. ©WWM 제공

“터키 정부, 1700년 넘은 곳 포함 6개 교회 몰수 결정”

현지 교계 강력 반발…소송 제기 나서

터키 남동부의 전쟁으로 파괴된 디아르바키르주 수르 지역 교회들을 당국이 모두 몰수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이 지역은 유네스코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곳이다.

월드와치모니터는 터키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간 대통령이 디아르바키르주의 재산 일부를 몰수했다고 전했다. 10달 동안 진행된 내전 이후, 도시의 역사적인 장소를 재건하고 회복한다는 이유에서다.

몰수된 재산 가운데는 가톨릭·개신교·정교회 건물들이 포함돼 있으며, 그 중 일부는 1,700년 이상이나 된 문화 유산이기도 하다. 터키는 인구의 98%가 무슬림으로, 에르도간 정부는 지난 3월 25일 몰수 명령을 내렸다.

아시리아인·아르메니아인·갈데아인·터키인 기독교 개종자들은, 터키군과 쿠르드노동자당 간의 분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쿠르드족의 집단 거주지가 있는 남동부에서는 쿠르드노동자당과 터키군 간의 전투가 지속되고 있으며, 터키군의 무차별 폭격과 진압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수백 명에 달한다.

터키 정부는 1년 전만 해도 실용주의와 민족 간 화해 원칙에 입각해 온건 쿠르드족을 포용했을 뿐 아니라, 독립을 추구하는 쿠르드족 무장 세력인 쿠르드노동자당과 평화 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해 총선에서 과반 탈선에 실패하고 쿠르드계 인민민주당이 선전하자, 협상을 깨고 쿠르드노동자당과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집권당인 정의개발당은 쿠르드족과 대립각을 세워 터키 민족주의를 자극하고 강경 보수 세력을 결

집시킨 데 힘입어 11월 조기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었다.

정부의 교회 재산 몰수 결정은 아르메니아·시리아·갈데아 기독교인 공동체 가운데 분노를 일으켰다. 일부 교회 재단은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기독교 공동체의 반발에 정부는 “유서 깊은 모스크들도 함께 몰수하고 있다”면서 “이번 결정에는 어떤 종교적 동기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월드와치모니터는 “터키 모스크는 정부의 후원을 받고 있는 반면, 교회 건물은 교회 재단들이 유지해 왔다”고 지적했다.

디아르바키르 개신교회의 아흐메트 구베네르 목사 역시 정부의 이번 결정이 재산 탈취 목적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월드와치모니터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이 교회들을 몰수한 것은 보호가 아니라 차지하려는 목적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구베네르 목사는 정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는 “터키 법정에서는 분명히 지겠지만, 유럽인권법 정에 항소하는 것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월드와치모니터에 따르면, 지역 정부 관계자들도 “몰수 결정은 법적인 정당성이 결여됐고, 마을에 문화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디아르바키르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상대로 공식적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속되는 분쟁으로 인해 대부분의 예배가 중단된 가운데, 일부 교인들은 주일 예배를 다시 드리기 시작했다.

강혜진 기자

“中법원, 첫 동성혼 소송 ‘불가’ 판결”

中법률 ‘혼인 당사자는 남녀 쌍방’ 규정…향후 판례로 굳어질 듯

최근 중국 법원이 동성결혼을 허용해 달라는 최초의 동성혼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쑨 웨린과 그의 파트너 후 밍리앙(37)은 지난해 6월 23일 중국 남부 푸둥구 민정국에 혼인등기를 신청했지만 민정국이 ‘혼인법’ 규정을 들어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쑨씨는 “민정국이 혼인등기를 해주지 않은 것은 자신들의 합법적인 권리침해한 것이며 행정기관이 마땅히 해야 할 책무를 태만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중국의 일부 동성애 권리옹호자들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 창사(법원)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법정 밖에서 순시와 후씨를 지지하고자 모였다.

한편 중국에서는 이번 사건이 동성결혼을 허용해 달라는 최초의 소송과 판결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판례로 굳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중국에서는 일부 사회학자들이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성 결혼만을 인정하는 중국 법규와 도덕·윤리 관습으로 지지와 반대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장소피아 기자

“IS 재정난 심각해 자금 마련에 고심”

꾸란 모르면 벌금 부과…대원 살해 후 장기 매매까지

재정난을 겪고 있는 IS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 징수 명목을 늘렸다.

IS가 점령지 주민들에게 꾸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이에 답하지 못한 이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일정액을 내면 태형을 면제받을 수 있는 항목도 신설했다. 위성 안테나를 설치하거나 고칠 때도, 점령지 밖으로 나갈 때도 돈을 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IS의 재정 상황이 매우 열악해졌기 때문이다. 국제 군사정보 컨설팅 업체인 IHS에 따르면, IS는 재정 수입의 50%를 세금과 점령지에서 몰수한 재산으로, 43%를 석유 판매로, 나머지를 마약 밀매와 전기 판매로

기부금 등으로 총당했다.

그러나 미군과 러시아군이 주도하는 공습으로 IS의 주요 석유 생산 시설들이 파괴되고 점령지도 탈환당하며, IS는 전체 수입이 작년 대비 30% 가량 줄었다.

지난해 IS의 월수입은 8천만 달러(약 920억 원)였으나, 지난 달에는 약 5,600만 달러(약 644억 원) 수준이었다.

점령지 면적이 줄면서 IS가 걷는 세금

도 줄었다. 2014년 6월 이후 1년 3개월 동안 IS가 장악한 지역의 면적도 22% 줄었다.

세금을 내던 점령지 주민 수도 900만

여 명에서 600만여 명으로 줄었다. 석유

량도 일평균 2만 1천 배럴 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

강혜진 기자

O.C./얼바인 지역

김철민 장로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org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562) 483-0191 / (714) 493-0191

김철민 장로

새벽예배 월-금 5:30AM
주일예배 2부 주일 9:00AM
주일예배 주일 11:00AM
토 8:30AM

김일영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주일 9:00AM
주일예배 주일 11:00AM
대회전예배 주일 2:00PM
제자훈련(시역훈련 회-목) 7:30PM

NEXT 사랑의교회

NEXT Sa-Rang Church
11 Musick Irvine, CA 92618 Tel (949)829-0010(office)
www.nextsang.com

김영길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10:00am 수요일예배기도회 9:00pm
(2부) 1:30pm 금요온전절야예배 8:00pm
사복예배 (월-토) 5:00am (금) 7:00am
화요종교기도회 7:00pm 토요성전예배 7:00pm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 714-600-7700 www.ubmchurch.com

김철민 장로

김영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도시체육예배 오전 8:00 설기축 예배 :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남가주 벤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806-2562 kpcadavid@yahoo.com

박재만 담임목사

민경업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한국학교 오후 6:00 (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4552 Lincoln Ave.#207, Cypress, CA 90630
T. (714) 952-0191 / www.socalfc.com

박재만 담임목사

김일권 담임목사

주일예배(KM) 주일11: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안창훈 담임목사
9: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주)이유비, 유초등부, 중고등부

늘푸른선교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gmail.com

김철민 장로

김일권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2:20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점은예배)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고현종 담임목사

이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15 4부 청년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3부예배 오전 11:00 토 새벽 협회 새벽 6:00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김현요 담임목사

이동준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15 중등부 오후 9:15
3부예배 오전 11:30 고등부 오후 11:30
4부 오후 2:00 한어부 오후 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알바인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권혁빈 담임목사

홍성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후 5:30(화-금)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부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어) 청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00
FAME예배 오후 11:30(청년 영어)

얼바인 침례교회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949)857-9425 / www.irvinchurch.com

박경호 담임목사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9:00 &10:30 새벽예배 화-금 6:00
금요예배 오후 7:30

영광빛복음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김민재 담임목사

엄영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8:00 세벽예배 평일 오후 5:30
2부예배 오전 9:45 새벽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1:30 새벽기도회 오후 5:30(화-금)
4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8:00

온혜한인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한기홍 담임목사

한기홍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후 5:30(화-금)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후 5:30(화-금)
수요예배 오후 7:30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252-9191 / www.l

제8차 한인세계선교대회

격동하는 지구촌의 종말론적 시대상황에 대한 선교전략의 재정립을 위해!
세계복음화의 미완성과업을 위한 위대한 선교비전과 긴박성의 재확인을 위해!
700만 한인디아스포라와 7000여 한인디아스포라교회의 선교적 대각성을 위해!
국내외 최고 강사진 200여명과 세계한인선교사 1200여명을 비롯한
목회자, 평신도, 청년, 대학생, 청소년, 어린이 및 선교사자녀(MK) 등
도합 5000여명의 집결을 예상하는 이 시대 최대규모의 동반자 협력선교의 대광장!
제8차 한인세계선교대회에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2016년 6월 6일(월)-10일(금)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 캘리포니아



로렌 커닝햄 YWAM 총재 데이빗 로스 안디옥커넥션 대표 폴 애슬만 CRU 부총재 론 스미스 YWAM SBS 성경학교 타드 존슨 고든컨웰 교수 존 월러스 이주사대학교 총장 존 월러스 아틀란티제일장로교회 서삼경 아틀란티제일장로교회 한기홍 은혜한인교회 김남수 프라미스교회 장영춘 퀸즈장로교회 나광삼 콘무리교회



고석희 KWMC 사무총장 이승종 샌디에고예수마을교회 김혜택 뉴욕총신교회 배현찬 주예수교회 호성기 필라안디옥교회 정인수 아틀란티언합장로교회 이동휘 바울선교회 대표 정운찬 전 국무총리 채수일 한신대학교 총장 강승삼 KWMA 전회장 박기호 폴리신학교 교수



김양재 우리들교회 오정호 새로남교회 장상길 송도주사랑교회 마이클오 국제로잔운동 총재 이동열 GKYM 사무총장 송충석 KWMF 대표회장 안성원 KWMF 사무총장 한도수 KWMF 공동회장 김종국 KWMF 공동회장 박명하 KWMF 공동회장 강대홍 태국선교사



강성일 브리질선교사 이국범 프랑스선교사 최광규 도미니카선교사 김영관 베트남선교사 김경일 KWMF 사무처장 김정한 미주선교사 정석천 태국선교사 최용순 가나선교사 이금주 말레이시아선교사 김승호 일본선교사 장영호 러시아선교사



제15차 한인세계선교사대회

2016년 6월 3일(금)-6일(월) /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
전세계 한인선교사 1,200명

한인세계선교사회

KWMF



오정호

새로남교회

유기성

선한목자교회

진재혁

지구촌교회

김양재

우리들교회

김동엽

목민교회

김문훈

포도원교회

등록/문의

www.kwmf.info / kwmf2016@gmail.com

KWMF • 인도네시아 62-813-8100-9905, 070-8221-1361 • 미국 1-213-507-3875

KWMF2016 6월 6-10일	일반 (만26세 이상)	대학생/청년 한어권/영어권 (만18~25세)	청소년 (만13~17세)	초등학생 (만7~12세)	아동 (만3~6세)
1차 3/31 마감	<input type="checkbox"/> \$300	<input type="checkbox"/> \$200	<input type="checkbox"/> \$150	<input type="checkbox"/> \$100	<input type="checkbox"/> \$50
2차 5/15 마감	<input type="checkbox"/> \$325	<input type="checkbox"/> \$225	<input type="checkbox"/> \$175	<input type="checkbox"/> \$125	<input type="checkbox"/> \$75
3차 6/5 마감	<input type="checkbox"/> \$350	<input type="checkbox"/> \$250	<input type="checkbox"/> \$200	<input type="checkbox"/> \$150	<input type="checkbox"/> \$100
KWMF 대회숙박	<input type="checkbox"/> 기숙사 2인1실 \$150 /인당 (4박5일) <input type="checkbox"/> 아파트 2인1실 (2 베드룸) \$200 /인당 (4박5일) <input type="checkbox"/> 아파트 2인1실 (1 베드룸) \$215 /인당 (4박5일)				
	동숙 무료 별도침대 <input type="checkbox"/> \$50				

*숙박을 안하실 경우 등록금만 내시면 됩니다. * 하루만 참가하실 경우(DAY-PASS) \$100 입니다.

*한 교회에서 단체등록시 10명 이상은 등록금 10%를 할인해 드립니다. (숙박비 예외)

등록/문의

KWMC 온라인등록 ▶ www.kwmc.com

이메일등록 ▶ kwmc@kwmc.com

전화 ▶ 516-277-2081, 2082

팩스 ▶ 516-686-6128

▶ 등록비가 인상되기 전에 속히 등록하시고
항공편도 속히 예약하실수록 저렴할 것입니다.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
Korean World Mission Council for Christ

KWMF2016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

Korean World Mission Council for Christ

1330 Wolver Hollow Rd, Oyster Bay, NY 11771

한인세계선교사회

KWMF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orean World Mission Association

WMK
선교사자녀대회

CTS
기독교TV

2016년 6월 6일(월)-10일(금)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 캘리포니아

901 E Alosta Ave, Azusa, CA 91702

제3차 선교사자녀대회

2016년 6월 3일(금)-6일(월) 17세 이상 선교사 자녀 400명

모든 세대가 함께 가는 KWMF2016!

KWMF2016은 모든 세대가 함께 가는 선교대회입니다.

아래 대회들은 모두 제8차 한인세계선교대회와 동일한 일시인 2016년 6월 6일(월)-10일(금)

동일한 장소인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개최됩니다.

영어권대회 English Conference

18세 이상 영어권 대학생/청년



이동열 선교사
GKYM 사무총장

어린이선교대회

청소년선교대회

3-12세

여현목사
어린이전도협회

13-17세

고현진 전도사
고유진 전도사

일시	대회	대상
6/3(금)-6/6(월)	한인세계선교사대회	전세계 한인선교사
	MK(선교사자녀)대회	17세 이상 선교사자녀
	MK청소년선교대회	13-16세 선교사자녀
	MK어린이선교대회	3-12세 선교사자녀
6/6(월)-6/10(금)	제8차 한인세계선교대회	18세 이상 한어권
	차세대영어권선교대회	18세 이상 영어권
	청소년선교대회	13-17세 청소년
	어린이선교대회	3-12세 어린이

6/6(월)-6/10(금)

차세대영어권선교대회

청소년선교대회

어린이선교대회

● 구소련 선교의 산실

러시아 모스크바 은혜신학대(원)

구소련 지역 선교 위해 지속적인 물적 영적 지원 필요해
은혜신학교 통해 개척된 2천여 교회 중
현재 1천 2백여 교회 복음 증거 계속해

1. 구소련 개요

구소련(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소련: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USSR)은 1990년에 미하일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ov) 대통령의 개혁(페레스트로이카)과 개방(글라스노스트)의 정책으로 인하여, 공산주의가 붕괴되고 15개 공화국으로 분리가 되었다.

이는 러시아(Russia) 공화국, 백러시아(Belarus) 공화국, 우크라이나(Ukraine) 공화국, 라투비아(Latvia) 공화국, 리투아니아(Lithuania) 공화국, 에스토니아(Estonia) 공화국, 우즈베키스탄(Uzbekistan) 공화국, 카자흐스탄(Kazakhstan) 공화국, 타지크스탄(Tajikistan) 공화국, 키르기즈탄(Kyrgyzstan) 공화국, 몰다비아(Moldova) 공화국, 그루지야(Georgia) 공화국, 아르메니아(Armenia) 공화국, 아제르바이잔(Azerbaijan) 공화국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2,240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영토를 가진, 이러한 소비에트 연방(구소련)은 세계에서 가장 큰 연합체로서 지구 면적의 1/6에 해당되며, 이는 동서로 1만 킬로미터에 이르고 11개의 시간대에 걸쳐 있으며, 5개의 기후대(툰드라, 타이가, 스텝, 사막, 고산)가 걸치게 되었다. 국경은 세계에서 가장 길어 약 6만 킬로미터에 달했고, 이는 북극해 해안 총 길이의 2/3에 달하게 되었다.

1991년까지 구소련의 국경은 아프가니스탄(Afghanistan), 중국(China), 체코와 슬로바키아(Czech Republic & Slovakia), 핀란드(Finland), 헝가리(Hungary), 이란(Iran), 몽골(Mongol), 북한(N. Korea), 노르웨이(Norway), 폴란드(Poland), 루마니아(Romania), 터키(Turkey)와 접했다. 특히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소련의 위성국가가 된 나라들로는 불가리아(Bulgaria), 루마니아(Romania), 폴란드(Poland), 체코와 슬로바키아(Czech & Slovakia), 헝

가리(Hungary), 알바니아(Albania), 유고슬라비아(Yugoslavia)가 있다.

구소련 종교의 중심이 되는 정교회(Orthodox church)는 A.D.988년, 키예프(Kiev) 대공화국의 블라디미르(Vladimir) 1세가 동로마 제국에서 파견 나온 정교회 성직자들로부터 세례를 받음으로써, 정교회는 러시아의 국교가 되었다. 그들이 사용한 슬라브어는 A.D. 864년, 모라비아(Moravia) 지역에 비잔틴(Byzantine) 선교사로 파견되었던 성 키릴루스(St. Cyril)와 성 메토디우스(St. Methodius) 형제의 키릴(Cyril) 문자 발명으로 고안되었던 것으로써, 러시아의 정교회로의 개종은 이 키릴(Cyril) 문자로 된 슬라브(Slavic)어로 보다 확고하고 영구하게 확립시켰다.

이러한 정교회는 주로 동유럽과 아시아 서부지역(주로 시베리아, 중앙아시아)에 퍼져 있으며, 그리스(Greece), 러시아(Russia), 우크라이나(Ukraine), 벨로루시(Belarus), 몰도바(Moldova), 세르비아(Servia), 몬테네그로(Montenegro), 루마니아(Romania), 불가리아(Bulgaria), 그루지야(Georgia), 마케도니아(Macedonia) 공화국, 키프로스(Cyprus)가 정교회 국가이다.

그 후 1992년 1월 1일부로 그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보리스 엘친(Boris Yeltsin)에 의해, 발트 3국인 에스토니아(Estonia), 라투비아(Latvia), 리투아니아(Lithuania)와 그루지야(Georgia)를 제외한 11개 공화국으로, 독립국가 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을 이루었다. 현재는 9개 회원국(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몰도바, 러시아, 타지크스탄, 우즈베키스탄)과 1개 준회원국(투르크메니스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지아(그루지야)와 우크라이나는 2008년과 2014년에 각각 탈퇴하였다. 현재 CIS 본부



수업을 마친 학교 관계자 및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는 벨라루스(백러시아) 수도인 민스크에 위치하고 있다.

2. 러시아 모스크바 은혜 신학대학(원)

1990년에 구소련의 공산주의가 붕괴되면서 개방의 문이 열리기 시작할 때, 미국 은혜한인교회(1990년)부터 GMI에서는 24명의 선교합창단(대학생,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 구소련 선교를, 1990년 7월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3월에 흥성훈 목사가 러시아 모스크바로 파송되어, 선교센터를 세워 구소련 선교를 준비하였다).

사할린(러시아), 하바롭스크(러시아), 타쉬켄트(우즈베키스탄), 알마타(카자흐스탄), 모스크바(러시아) 순으로, 한 달 반 동안 찬양 전도 집회를 하여, 10,0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으며, 동시에 상기의 5곳에 9월부터 파송된 선교사들 5가정에 의하여, 은혜교회 개척이 구소련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1992년 3월에 시작된 러시아 모스크바 은혜 신학교를 통하여, 구소련 선교가 더욱 확장되게 되었다. 2003년 3월에 5년제 신학대학 및 대학원으로, 러시아 정부에 정식으로 등록이 되었으며. 1992년 3월부터 2015년 9월까지, 1기~26기까지 2,605명이 입학, 2,461명이 졸업 하여, 그들을 통하여 구소련 전역에 2,000여 교회가 개척되었으며, 현재는 1,200여 교회가 남아 그 사명을 계속 감당하고 있다.

현재의 신학교 건물은 2012년 7월부터 기초공사를 시작하여, 2013년 9월까지 중, 총 7개월간에 걸쳐서

반 지하 및 지상 2층과 반 지상 3층(총 3개 층)으로 건축이 되었다(60여 명이 생활할 수 있는 숙소, 강의실, 식당시설).

감사한 것은 신학교 건축을 위한 땅의 구입과 건축비가 모스크바 은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졸업생들의 현금으로 많이 충당이 되었으며, 구소련 GMI 선교사들과 미국의 은혜한인교회와 한국의 은혜교회(김광신 원로목사가 2004년 말 개척을 하였으며, 현재는 김태규 목사가 담임하고 있으며, 출석교인 600여 명이 된다)의 성도들의 현금으로 건축

이 된 것을 들 수 있다. 건축에는 카자흐스탄 가라간다 은혜교회 교인들과 재학생 신학생들 및 모스크바 은혜교회 성도들의 귀한 헌신이 있었다. 전체 건축 및 신학교 운영은 13기 졸업생인 니콜라이 목사와 예레나 사모 부부가 맡아서 수고하였으며, 계속 수고하고 있다. 또한 신학교 부지(가로 100m & 세로 60m) 안에 1층과 2층이 섞인 사무실과 강의실 건물을, 지난해 5~7월까지 3개월 동안, 현지 성도들과 신학교 재학생들의 수고로 건축한 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게 되었다.

선교의 핵심은 선교지 현지인들의 제자화와 그 제자들의 교회개척을 통하여 영혼구원 및 그들을 통한 자립, 자치, 자전, 성경적 자신화를 통한 토착화로 볼 수 있다. 모스크바

은혜 신학교는 대표적인 GMI의 선교전략을 보여주는 사역이다.

필자가 23년 전, 구소련 전체 선교센타의 실무자(디렉터 흥성훈 목사와 유의경 목사가 순차적으로 담당)로서 4년 반의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모스크바 은혜신학교의 사역 지원과 1993년과 1994년의 대형집회(각각 11,000여 명 참석 및 이 중, 1,000여 명은 미국, 한국, 유럽에서 온 팀 멤버들) 및 기타의 수많은 사역들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시고, 위험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지켜주신 주님께 다시 한 번, 이번 모스크바 사역을 위한 방문을 통하여 감회에 젖으며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이번 선교학 전체 강의를 통하여, 모든 신학생들(26기생 47명)이 선교의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고, 깨닫고, 앞으로 선교적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성경적 선교신학과 선교역사와 문화인류학과 비교종교학 및 선교전략을 잘 배우고, 지켜 행하기를 기도한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성도들의 초교파적인 구소련 선교를 위한 지속적인 중보기도와 물질지원 및 단기선교와 장기선교에의 헌신을 간절히 부탁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시 133:1).

양태철 목사

GMI(은혜한인교회) 선교팀장



러시아 GMI은혜신학대학(원) 전경(이 건물 부지 구입과 건축에는 이 학교 졸업생들의 작은 헌신들이 큰 기여를 했다).



GMI은혜신학대학(원) 학장 니콜라이 목사 부부와 함께 한 양태철 목사(중앙).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봄학기 학생모집



본 기독교 복음선교 연합총회에서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주 교육국의 승인을 받아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를 진리와 경건이란 학문을 가지고 설립하고 다음과 같이 2016년 봄학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신학 대학교

신학 대학원

일반 대학교

홈스쿨링

신학과(BA) – 4년 / 126학점

1) M.Div. 교역학 석사 과정 – 3년 / 96학점

2) M.A. 석사과정 – 2년 / 48학점

3) Th.M. 신학 석사 과정 – 2년 / 48학점

4)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3년 / 48학점

5) Th.D. 신학박사 과정 – 3년 / 56학점

1) 선교사 과정 – 2년 / 56학점

2) 평신도 지도자과정 – 1년 / 36학점

3) 평신도 성경학교 – 6개월 / 12학점

4) 채플린 과정 – 소정 과목

5) ESL 과정 – 1년

6) 유치원 교사 및 원장 과정 – 1년

봄학기

2016년 3월 21일(월)~5월 28일(토) 수업

(봄학기 등록마감 3월 21일까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정과 교육의 문제의 대안으로 크리스천 홈스쿨링 교육을 전문으로 지원합니다.

크리스천 홈스쿨링은 크리스천 부모들과 자녀들이 함께 영성과 인성과 지성이 통합적으로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성경적인 교육 방식입니다.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의 홈스쿨링은 무너진 가정과 교육의 회복을 위해 잎의 본질을 앞세우고 제자도를 실현하기 소망하는 가정들의 결단과 헌신을 격려하며 견고하게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 1학년에서 12학년까지 기독교식 홈스쿨링 방식으로 교육학 박사들과 교사들이 전문 지도합니다.

* 교과 과정 중 50%는 인터넷으로 수업이 가능합니다.

* 본 학교는 분기별(쿼터제)로 학생을 모집합니다.



* 입학 첫학기 등록 학생들에게는 80% 장학금을 드립니다.

* 기독교 복음 선교 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in America (CTCS)

1508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213)999-6884(대표전화), (213)272-6031, (213)235-6889

•한수희 칼럼(4) 공감적 경청

공감적 경청이 어려운 이유(후천적 난청)

십 수년간 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잘 듣는 법에 대해 배워본 적이 있는가?

책 읽는 법을 배우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한 것들을 글로 풀어내거나 말하는 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배운 반면, 듣는 법에 대해선 대체로 관심도 교육도 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잘 듣는 방법에 대해 반드시 훈련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잘 듣는다는 것은 사랑과 관심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며, 사랑과 관심을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평범하고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실천적 사랑의 한 방법인 공감적 경청에 대해 살펴보자 한다.

경청의경(傾)은 기울여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몸을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여 듣는 상태에 대한 표현이다. 청(聽)은 귀이(耳) 자와 임금(王)을 좌변에 쓰고 있다. '왕의 귀'로 들으라는 것이다. 한자적 의미는 커다란 귀로 들으라는 표현이다. 우리에게 왕은 바로 하나님이다. 우리가 배우자나 자녀, 동료나 이웃의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귀로 들어야 하는 것

이 듣기의 기본적인 첫 출발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우연에는 열십(+) 밑에 눈 목(目) 자가 있다.

열 개의 눈을 갖고 들으라는 의미

이다. 열 개씩이나 되는 눈을 동원해 가며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듣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왜 보는 것에 대해 말

하는 것일까? 경청에는 보는 것 역시 그 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열 개의 눈으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말하는 상대의 표정이나 몸짓 뿐 아니라 불안함, 혼란함, 당황스러움, 부끄러움 등으로 입 밖에 내어 놓지 못하는 그들의 진짜 마음이다. 우연 밑에는 한 일(一)과 마음심(心)이 있다. 하나의 마음으로 들으라는 것이다. 그 하나의 마음은 다름아닌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다. 결국 경청이란 '상대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것'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말의 내용을 파악함은 물론, 몸짓, 표정, 그리고 음성에서 섬세한 변화를 알아 차리고 알려 있는 메시지를 감지하며 나아가서는 그 사람이 말하지 못한 내용까지도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이다.

경청의 의미만 살펴보아도 벌써 골치가 아플지도 모르겠다. 잘 듣는 방법에 대해 배우기도 전에 이미 듣는 작업이 녹록치 않을 것을 느꼈다면 절반은 성공한 셈이다. 내 볼일을 보면서 귀에 들려오는 소리를 그저 듣는 것이 경청이 아니라는 것과 잘 듣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 이 경청을 배우는 첫 걸음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경청이 어려울까? 첫째, 생리적인 원인에서 찾을 수 있다. 사람은 말하는 것보다 5배 빨리 듣는다. 즉 1분에 120 단어를 말한다면 1분에 600단어를 들을 수 있다. 남는 시간에 무얼 하겠는가? 완전히 집중하지 않으면 그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기



한수희 강사
기독교 상담 세미나

가 그 만큼 쉽기 때문에 경청하기가 어렵게 된다. 또한 사람의 성향에 따라 말하는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경청이 더욱 어렵다. DISC라는 자기 이해 검사를 통해 보면 "D" 유형, 즉 주도형인 사람들은 서론이 길어지는 것을 참기 어려워하고 본론부터 바로 들어가야 한다. 결과와 유익에 대해 먼저 알리고 세부적인 것은 필요할 때 말해야 집중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사변적인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기 시작하면, 그들은 경청하기가 무척 어렵다. 반면 "C" 유형인 신중형의 사람들은 굉장히 정확하고 세부적이기 때문에 일을 처리하는 방식뿐 아니라 대화의 패턴에서도 일이 일어났던 기승전결을 가능한 자세히 이야기 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신중형인 사람이 주도형의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집중해 듣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 할 때가 많다. 따라서 잘 듣기 위해서는 나에 대한 이해와 상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둘째, 자기 안의 소리가 많기 때 문이다.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벌써 내 생각이 머리에 가득하다. 내 안에 가득 찬 소리가 상대방의 말을 편견이나 판단 없이 듣는 것을 방해한다. 우리는 들으면서 원하는 결과를 어떻게 얻어낼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가능한 한 빨리 대화를 마칠 수 있는지, 아니면 더 유리한 방향으로 다시 끌고 갈 수 있는지를 생각한다. 상대의 말을 경청하려면 내 안의 소리를 음 소거(mute)시켜야 한다. 물론 필요할 땐 권면도 해야 하고, 직면도 시켜야 한다. 그러나 성급한 권면과 직면의 단계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는 일단 내 안의 소리를 죽이고 하나님과 열 개의 눈을 가지고 잠자리 들어야 한다. 나의 말에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을 통해 존중 받는 것을 느끼며, 이해 받고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을 할 수 있게 된다. 충분히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이야기 해도 늦지 않다. 아니 오히려 그 때가 상대의 진짜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이다.

셋째,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말을 막고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듣는 자신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한 무의식적 동기가 작용하는 경우가 꽤 많다. 나의 가치에 대한 위협, 권위에 대한 위협, 편리에 대한 위협, 안전함에 대한 위협들이 느껴질 때 우리는 상대의 입을 막아 듣는 입장에서 말하는 입장으로 성급히 역할을 바꾼다. 고상하게 역할을 바꿀 수 있는

도구로 때론 권면과 훈계를 사용하면서...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하겠다고 '경청'이라는 것을 하는 순간 조차도 우리는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모두 뿐 깊이 '자기 중심적인 존재'임을 시인해야 한다. 그리고 정직한 시인을 통해 노력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해야 한다.

위에 열거한 이유 외에도 여려 이유들로 인해 우리는 상대의 말은 듣되 그 마음은 이해하지 못하는 후천적 난청을 앓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경청을 잘 하기 위한 방법과 기술들이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왕의 귀를 갖기 위해 사랑의 보정기를 켜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말하는 사람에게 모든 주의를 기울이고 그 사람을 바로 우리 자신의 속으로 기꺼이 맞아들이는 영적 환대인 경청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청하는 행위의 아름다움은 말을 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 의하여 받아들여졌음을 느끼는 것이다. 감정의 표현이 용납되는 관계가 된다는 것이며, 나를 알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너를 아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친밀하고 영적인 관계로 발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친밀하고 영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렵다면, 이를 가로막는 나의 걸림돌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적극적 경청을 실천해 보자.

•김만태 전문칼럼(1)

대학설립 ABC “미국에서의 종교특례대학 설립”

미국에서 신학교를 설립하려면 먼저 주정부 사립대학교육국(BPPE, Bureau for Private Post-secondary Education)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승인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종교특례대학(religious exempt school)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대학이다.

그런데 각 주마다 정책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일리노이 주에서는 2년제 이상의 학위를 수여하려면 전공분야를 막론하고 반드시 일반대학 수준에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신학교 역시 일반대학들과 같은 수준에서 심사를 받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종교

특례대학 형태로서 2년제 학위부터 박사학위까지 수여할 수 있게 해준다.

종교특례대학은 일반대학 설립보다 훨씬 간소한 절차와 저렴한 비용이 들며 요구사항이 적다.

첫째, 종교특례대학이라는 명칭은 주정부의 일반 사립대학 표준 준수로부터 면제된다는 뜻이다. 일반대학은 승인받은 후 매년 BPPE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5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종교특례대학은 승인(verification)을 받는 즉시 이러한 의무에서 면제된다.

둘째, 종교특례대학은 신청비가 250불이지만 일반대학은 5,000불이다.

셋째, 일반대학은 신청시부터 5



김만태 대표
SAS인가컨설팅

년 안에 필수적으로 연방인기를 받아야 하지만, 종교특례대학은 이러한 의무가 없다.

일반대학은 이외에도 많은 요구사항들을 충족해야 하지만 종교특례대학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종교특례대학 설립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

신청기관이 교단 혹은 교회, 선교회, 기독교 성격의 연구소이면 설립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종교 기관에서 종교 교육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것이다.

수여할 수 있는 학위는 종교적 성격을 띠어야 한다. 신학전공의 경우 B.Th.(신학 학사), Th.M., M.Div., D.Min, D.Miss, Th.D 학위를 수여할 수 있지만, B.A., M.A. 학위는 수여할 수 없다.

일반 전공의 경우 종교와 융합된 학위를 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음악전공은 기독교 음악, 교회 음악 학위를 학사, 석사, 박사까지 모두 수여할 수 있다.

또한 종교특례대학 승인과 관련, 그 승인을 1년이 넘도록 받지 못한

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처음 신청할 때 서류를 완전하게 구비해서 제출하지 않아서이다. BPPE의 인력부족과 사무적 문제로 인해 신청서 제출시에 바로 승인을 받지 못하면 지연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BPPE에서 요구하는 종교특례대학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바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승인을 받는데에는 2개월 정도 걸리지만 빨리 나오는 경우는 2주 안에도 나온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SAS 인가컨설팅으로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의: 213-531-7215

▲이메일:
summitus37@gmail.com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최저 1C
1장

복사기판매!
렌탈!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 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복사기 무료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칼라
카피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ip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복새통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잠언 8:10)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 추천

못해 그래도 크리스천

추창호 | 요단 | 304쪽

모태신앙은 “교회 환경에서 성장하여 여전히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있으나, 구원의 확신도 없고 교회 밖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됐다. ‘모태신앙인’은 당연히 영적 교훈들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실천적 신앙을 뿌리내리지 못한 채 ‘못해신앙인’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저자는 그들에게 ‘놓치고 있던 복음’, 즉 기본을 전수하고 있다.



전도에 날개를 달다

곽준상 | 품관 | 278쪽

25년간 한신교회 장로로 일하면서 이종표 목사의 인격과 사역, 복음의 열정을 배운 곽준상 장로가 자신의 전공인 마케팅이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별세와 만나면 어떻게 전도로 나타나는가를 이 책을 통해 보여준다. 이론만이 아닌 전도 현장에서 임상적으로 실험한 최고의 전도 전략을 소개하여 누가 읽어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으며, 전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을 심어준다.



세계관 전쟁

이태희 | 두란노 | 320쪽

비윤리적 성문화 동성애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올해 서울 광장 퀴어축제 승인으로 또다시 우리나라로 동성애 문제로 점점 더 골머리를 앓아 가고 있다. 저자는 동성애자는 성도착증 환자의 더 강한 욕구가 한계단 더 선을 넘은 상태라며 동성애 확산 방지를 위해 기독교계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온 사람 중 하나다. 이 책은 동성애에 대한 정확한 시각과 해법 이해에 도움을 준다.



한 알의 밀이 되어

다카하시 미치아키 | 대한기독교서회 | 208쪽

이 책은 1970-80년 대 약 25년간 일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지친 자들을 위하여 사랑을 실천한 한국인 선교사 정해련의 일대기를 그린 책이다. 그의 삶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12:24)는 말씀의 실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2011년에 일본에서 출간되어 일본인들에게 큰 감동을 줬다.



REVIEW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문제 자녀가 보석 자녀다!”

좋은 자녀, 나쁜 자녀가 따로 없다. 다만 문제 부모를 위해 수고할 뿐이다.

◆고난 중 최고의 고난, 자녀 고난
오늘도 자녀 문제로 죽음보다 더 힘든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부모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도 없고 끝도 없어 보이는 자녀 문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눈물로 호소해 보지만 지치기만 할 뿐 하나님은 듣지도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마치 세상에 내 자녀만 문제 있는 것 같고, 나 이 상의 고통을 겪는 이는 없어 보입니다. 나는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디서 저런 자식이 나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문제 자녀가 보석 자녀라고?

하지만 저자는 문제 자녀가 보석 자녀라고 합니다. 힘들고 아프고 문제만 일으키는 자녀를 통해 내가 말

씀이 들리고 거룩을 이루어 간다면 그 자녀가 최고의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문제 자녀가 오히려 문제 부모를 위해 수고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나도 속고 남도 속는 믿음 가운데 있으니, 문제 자녀의 수고를 통해 부모를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는 주님의 뜻이라 는 것입니다.

◆제가 문제 부모입니다

자녀 문제는 사실 부모 문제입니다. 부모가 성공 우상, 자녀 우상에 사로잡혀 자녀를 달달 뷔아 생긴 부모 삶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난 억울하다”, “난 자식을 위해 빼 빼지게 고생한 죄밖에 없다”고 부르짖으며, 자녀 문제를 자녀 탓으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김양재
두란노 | 240쪽

로 돌린다면 아직 죽음의 터널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녀 문제는 “내가 죄인입니다”, “저 때문에 자녀가 수고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자

녀가 대학에 불든지 떨어지든지 기뻐하지도 슬퍼하지도 않는 경지까지 가야 합니다. 돈을 벌어서 잘 살게 되어도 기뻐하지 않고, 못살게 되어도 슬퍼하지 않는 그 경지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됩니다.

◆구원을 목적으로 사랑하십시오

이 책에는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문제 부모, 문제 자녀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공동체 안에서 자신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어울려 말씀을 듣고, 적용하고, 나누면서 가치관과 삶이 변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백이 이 책에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 문제 부모, 문제

자녀가 있어 속을 끓고 있든지, 또 설령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구원을 목적으로 그들을 사랑할 때, 우리 가정 안에도 반드시 천국의 소망이 피어날 것입니다.

지은이 김양재 목사는 우리들교회 담임목사이다. ‘목욕탕 교회, 때밀이 목사’는 김 목사의 별칭이다. 우리들교회에 가면, 김양재 목사를 만나면 사람들은 위선과 체면, 인격이란 가면을 벗고 자신의 본모습을 드러낸다. 가출 직전, 부도 직전, 이혼 직전, 자살 직전의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고백하고, 서로 때를 밀어 주면서 치유의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

이영인 기자

Church Property Solution 교회부동산 전문회사

Division of Max Capital Group, Inc.

교회 부동산에 관한 모든 것! 전문가에게 맡기십시오!

For Sale

Fullerton: \$1.25 M, 250석 본당, 친교실, 부엌, 교육부 교실들, 충분한 파킹
Yorba Linda: \$4.895 M, 225석 본당, 3.25 AC Lot, 친교실, 부엌, 크리스천 학교
Downey: \$1.25 M, 160석 본당, 친교실, 부엌, 교육부 교실들
기타 지역별로 문의하시면 정성껏 찾아 드립니다.

For Share

Anaheim Hills: 월 \$3,500.00, 주일 오후와 주중 모임 사용 가능
Garden Grove: 월 렌트 네고, 주일 오후와 주중 모임 사용 가능
Diamond Bar: 월 렌트 네고, 주일 오후와 주중 모임 사용 가능
Whittier: 월 렌트 네고, 주일 오후와 주중 모임 사용 가능
기타 지역별로 문의하시면 정성껏 찾아 드립니다.

교회 부동산 매매 Church Property Sales

교회 부동산 리스 Church Property Lease

교회 미디어 디자인 Media Design & Consulting

부동산 매매와 리스 | 인더스트리/오피스 건물/비지니스 팩을 교회로 변경 사용 | 교회 건물 렌트 | 건축/증축/보수 상담 | 교회 부동산 응자
각 시의 CUP 받는 것을 대행 | 예배실 디자인 | 교회 미디어 상담/디자인 | 이에 필요한 모든 벤더들과 협력

Mark Kim, CEO/Broker

BRE # 01338646, NMLS # 393349
PH (909)643-3994
Email: markk@churchpropertysolution.com

Stephanie Jung, COO

BRE # 01849106
PH (562)480-6912
Email: sjung@maxcapitalgroup.org

Max Capital Group, Inc

135 S State College Blvd Suite 200
Brea, CA 92821

PH (714)987-6120 | Fax (909)635-6116

www.churchpropertysolution.com

BRE # 01987951 NMLS # 1425276

“기독로 채워가는 여백의 힘”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한 기도 … 그 옆 여백에 써보는 내 삶의 이야기

이 책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저자는 한쪽 면을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한 기독로 채운 반면, 다른 한쪽 면은 여백으로 남겨두었다. 한쪽에 실린 글을 다른 쪽 여백에 필사하는 방식이다. 인용한 글의 길이는 대체로 짧다. 따라서 필사하고 남은 여백에 얼마든지 자신의 기도를 적을 수 있다. 상상력을 자극하는 여백의 특성에 맞춰, 특정 선배의 글에 빗대어 자신의 현실 고투 또는 감사 를 기록할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독자 하기에 달렸다. 그만큼 특별한 형식에 얹매이지 않는 점이 이 책의 장점이다.

만약 저자가 책에서 치부 없이 위대함에 이른 선배들만 다루었다면, 적어도 덜 위대한 이들의 성취만 나열했다면 책에 실린 명문의 가치는 현격히 떨어졌을 것이다. 이 경우 오히려 이웃 아저씨의 인생 회고담이 명문보다 나을 수 있다. 공감의 원천은 누군가의 글이 내 삶과 전혀 동떨어지지 않았다는 동질감에서 오기 때문이다.

저자가 인용한 글이 초대교회 교부, 중세 수도원의 수도사, 종교개혁자, 이를 없이 살다간 무명의 그리스도인을 가리지 않고 그들의 고백과 다짐, 울부짖음, 회개, 하나님과의 내밀한 대화 등으로 무한히 확장해간 이유가 거기에 있다. 우리 역시 그들이 겪었을 실패와 좌절, 환희의 순간을 두루 또는 일부분이라도 겪게 마련이라 공감할 조건을 적잖이 갖춘 셈이다. 그러니 읽기에 앞서 ‘생경한 구석이 없지 않을까?’라는 걱



쓰면서 응답받는 감사기도
유성준
평단 | 288쪽

정은 하지 않아도 좋다.

역시나 아는 인물의 글은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다. 반면 그렇지 못한 인물의 글은 감정이입의 폭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문제가 있다. 그 점에서 이 책에 아쉬운 구석이 없지 않다. 그렇다고 그와 같은 아쉬움이 다양한 필자로 진용을 갖춘 책에서 주로 확인되는 ‘마음에 맞는 글을 선택해가며 읽기’라는 또 다른 강점을 암도하지는 못한다.

아는 인물의 글은 거듭 되새기며 읽되, 모르는 인물의 글은 각자의 신앙 정도에 따라 되도록 상상하며 읽기 를 권장한다.

단순히 선배들의 글을 필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활자가 드러나지 못한 인물 특유의 생명력을 글의 행

간을 통해 끌어당기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그들의 글이 “손으로 읽

겨 쓰면서 드리는 (자신만의) 기도”로 바뀌는 경험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될 것이다. 역시나 상상력은 행간을 북돋는 유의미한 수단임에 틀림 없다. 그렇다고 엉뚱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까지 용인하자는 취지는 아니니 이 점 새겨들을 것!

필사를 위한 책들이 비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듯, 이 책에서 아날로그 감성을 자극받는 등의 유익을 얻는 모양이다. 하지만 그런 유익은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기독서적은 저자의 말처럼 다른 유익에 앞서 ‘하나님과의 내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아가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 통렬한 자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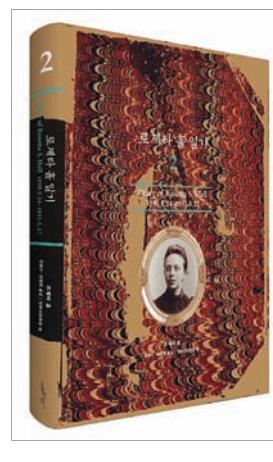
성찰과 분명한 회개에 이어 희생을 바탕으로 이웃과 세상을 향한 삶의 결단으로까지 나간다면 그만한 유익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나라의 가엾은 세계로 독자를 인도할 여백에서, 이 책은 여느 책에 비할 바가 아니다. 여백을 무엇으로 채울지는 독자의 판단에 달렸다. 앞서 설명한 대로 글과 삶을 같은 평형 위에 놓고 가감 없이 바라보기를 권한다. 그래서 현재 자신이 머문 도상이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 가늠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때마다 가없이 펼쳐진 궁극의 지평선이 ‘수건을 벗은 얼굴(고후 3:6-11)’로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 부분에 이 책의 유익이 돋을 새김되어 있다.

김정완
크리스찬북뉴스

“백년전 선교사들의 생각과 상황”

로제타 훌 선교사의 초기 한국 선교사역 이야기



로제타 훌 일기2
로제타 훌
홍성사 | 344쪽

이 일기에는 100년 전 로제타 선교사가 펼쳤던 구체적인 선교 내용 뿐만 아니라 함께 일했던 선교사들의 모습, 한국 여성들이 서양 의사의 치료와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특히 로제타 선교사가 우리나라 최초 여의사 박에스더를 만나 그녀에게 의학을 가르치는 과정, 여메리 전도부인의 우리나라 전통 결혼식 장면, 양반집 부인과 가난한 여인들을 똑같이 치료하는 모습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었다. 일기에는 100여 년 전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진, 자신이 구매하거나 사용한 물건과 관련된 영수증이나 카탈로그, 티켓, 주고받은 편지가 실물로 첨부되어 있으며, 후일에 로제타 선교사가 일기 내용을 보완하거나 정정하여 사료적 가치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양화진문화원은 2015년 9월에 1권을 출간한 데 이어 이번에 두 번째 일기를 출간하였으며, 2017년 말까지 6권 모두를 출간할 계획이다.

『로제타 훌 일기』의 특징으로 일기의 본래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도록 각각의 페이지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수록하고, 그 아랫부분에 번역문을 실어 일기를 읽는 현장감을 극대화한 것을 꼽을 수 있겠다. 로제타 선교사는 일기를 단순히 글자로만 채운 게 아니라 다양한 모습의 사진과 편지, 실물 자료 등을 첨부하였고, 특히 두 자녀의 육아일기에는 머리카락, 해 입힌 옷감이 실물로 붙였으며, 아이들이 키가며 변화하는 모습을 알 수 있도록 아이들의 손 모습을 그대로 그려 넣는 등 다양한 시각 이미지를 추가했다.

로제타 훌 일기』(도서출판 홍성사 간)는 한국에서 평생을 헌신한 첫 번째 여성의료선교사인 로제타가 한국으로 파송된 1890년부터 의료선교사로 함께 헌신했던 남편 윌리엄 제임스 훌이 소천한 1894년까지의 약 5년 동안의 기록이다. 로제타의 선교사역을 기록한 일기 4권과 두 자녀(셔우드 훌과 에디스 훌)의 육아과정을 기록한 일기 2권 등 모두 6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로제타 훌 선교사의 유족(손녀 필리스 훌 킹과 에드워드 킹 부부)은 2015년 4월 이 일기 원본 6권을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교회 부설 양화진기록관에 기증했다. 양화진문화원은 이 일기에 담긴 내용이 100여 년 전 한국에서 헌신한 선교사들의 생각과 당시 한국의 선교상황을 잘 보여주는 사료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하고 6권 모두를 번역 출간하기로 했던 것이다. 이수민 기자

삶의 성찰과 실천 위한 묵상집



오늘-현대인을 위한 묵상집
전의영
컨콜디아사 | 368쪽

박한 깨달음을 안겨 주는 대목이다.

또한 루터회 소속 목회자가 쓴 묵상집답게, 구성은 교회력을 중심으로 한다. 저자는 전류리루터교회를 목회하는 전의영 목사다. 일상 묵상임에도 이렇듯 성경과의 연결점 모색이나 교회력에 따른 구성을 통해 기독교적 토대가 튼실하다.

일상과 성경을 능란하게 연결시키는 저자의 전공은 구약학이다. 강남대에 제출한 그의 박사학위논문의 연구 방법론이 설화(narrative) 비평이다. 그래서인지 그는 유독 이야기에 능한 듯하다. 나직이 짚조리는 그의 목소리가 지면을 넘어서 우리 귀에 닿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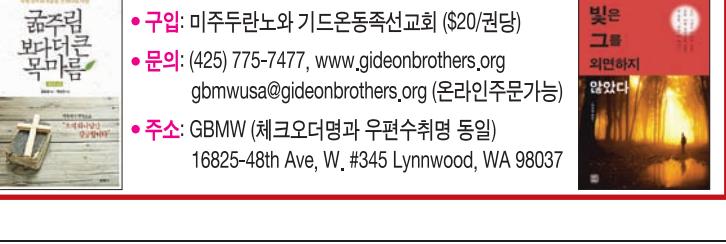
더욱이 제목이 보여 주듯 언제나 묵상의 마지막에는 오늘을 위한 간단한 제언이나 잔잔한 감상을 제시한다.

김진영 기자

은 우리의 생각을 다시금 성경으로 돌려놓는다. 신앙인들의 묵상의 근원은 역시 성경이 되어야 한다는 소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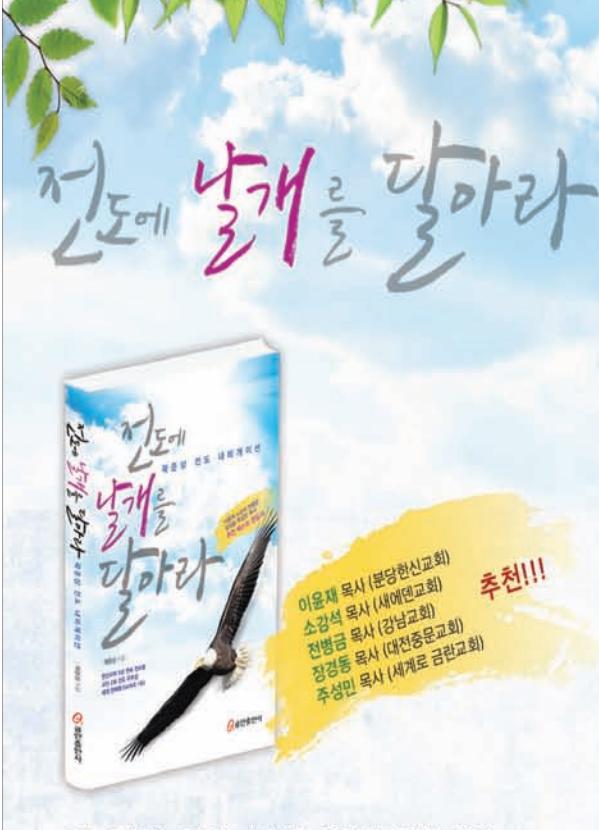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드온동족선교회 (\$20권당)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 가능)

주소: GBMW (체크오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전도는 은사 받은 자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을 심어주는 최고의 전도서다.

한신교회 5년 연속 전도왕, 교단 2회 전도 우수상, 20여 교회 전도집회
인도 등 전도에 열정을 다하고 있는 광운상 장로의 경험을 고스란히 담았기에 전도 내비게이션과 같다.

각주상 지음 | 278면 | 13,000원



삼대지 설교뿐 아니라 4페이지 설교, 이야기 설교, 분석 설교 등 다양한 설교 구성 방법을 본문에 맞게 적용해온 저자에게 설교 기법을 배울 수 있어서 내용이나 구성에서 설교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좋은 자료가 되는 청주금천교회 김진홍 목사의 10번째 설교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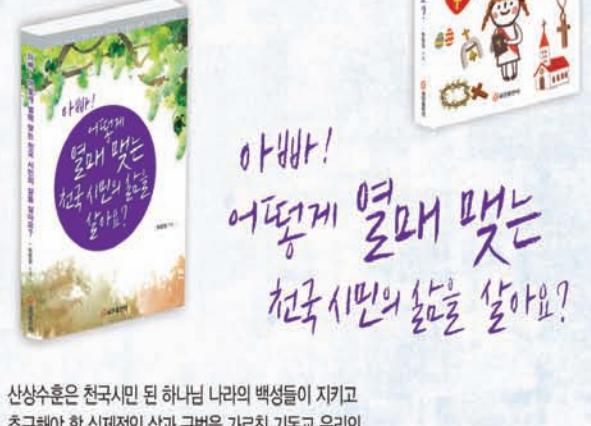
김진홍 지음 | 384면 | 13,000원



신앙고백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도신경 강해를 통해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갖고 거짓에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책에 신앙고백의 기본 설교 22편을 담았다.



산상수호로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고

추구해야 할 실제적인 삶과 규범을 가르친 기독교 윤리의

대가령이다. 이 책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바로 알고

실천적 행함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천국시민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다.

최명일 지음 | 360면 | 13,000원(각권)



This year's SOLA Conference, which was attended by some 500 students and pastors, focused on the theme, 'Light After Darkness.'

In Christ, 'There Is Light After Darkness'

BY RACHAEL LEE

Hundreds of mostly Korean American college students from over 50 different churches in Southern California gathered at New Life Community Church in Artesia from April 15-16 for the fourth annual SOLA Conference, a conference for collegians co-hosted by several Korean American and Korean immigrant churches.

The turnout of some 450 students and about 50 pastors makes this year's conference the largest in its history. College students from many major Korean American churches (the term being used broadly to refer to churches that have a majority of Korean American staff and congregants) including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Gospel Life Mission Church,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Sovereign Grace LA, and Good News Chapel, as well as English congregations of Korean immigrant churches including Bethel Church, Oriental Mission Church, LA Open Doors Church, New Life Vision Church, Good Stewards Church, and All Nations Church, were seen in attendance.

This year, in accordance with the theme 'Light After Darkness,' the scope of the conference focused much on the hope and victory that is found in the gospel in the midst of the shame, hurts, challenges, obstacles, and failures that all people deal with in life.

Chris Brown, one of the senior pastors at North Coast Church and one who has had years of experience ministering to college students and young adults through his ministry at Azusa Pacific University, said that such a theme is particularly poignant as college students today "have to deal with a lot more than the college students from 40 years ago," due to the accessibility that they have to all kinds of information.

Brown said that Christians must not run away from, nor blame others for, those broken aspects of life, but "face and accept the truth" about themselves, as he addressed the collegians during the first session of the conference.

Just as Jesus brought to light the truth about the Samaritan woman who had five husbands (John 4), Jesus wants to deal with those painful aspects of each person, Brown said.

"He will cross every racial, gender, political line to deal with it," he said.

"Jesus said that we must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he explained, adding, "Jesus is saying 'You won't be able to worship Me spiritually unless we go there.'"

Alex Choi, the senior pastor of Sovereign Grace LA, emphasized that Jesus himself experienced deep pain while on earth.

"Because of what he went through, he can understand our

pain," Choi said, an idea which was echoed by Harold Kim, the senior pastor of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If you feel like you fall again, and again, and again, remember that Jesus got beat down again, and again, and again — but he got up," Kim said, "and so will every Christian."

Kim, who spoke during the last session on the story of Lazarus being raised from the dead, also emphasized the power of God, the love of God, and the glory of God that is revealed through brokenness.

Jesus' raising of Lazarus from the dead reveals his power, Kim said, and it also reveals his love for Lazarus as Jesus risked his own life to go to Lazarus and raise him from the dead. But in response to just those two factors — the power and love of God — some may still have lingering questions, Kim said.

"If God is powerful and loving, then why does he allow pain? Jesus, why did you let Lazarus even die in the first place?" Kim posed.

He pointed out that though Jesus had the power to stop Lazarus from dying, he chose to wait instead, that God's glory would be revealed and that even more people would see and be in awe of God.

"Because Jesus is all powerful and supremely loving, he let [Lazarus] die," Kim said, "to bring about an even greater revelation of God."

Also in accordance with the theme, many of the breakout ses-

sions at the conference featured topics such as understanding how past pains shape God's future plans; understanding how the gospel takes away shame; discerning one's calling from one's life experiences; and creating a structure to be more focused in following Christ in the midst of a distracting world, among others.

Meanwhile, about 50 pastors also attended the conference, and a luncheon panel for the pastors was also a part of the event, during which Harold Kim, Alex Choi, and Julius Kim, the dean of students at Westminster Seminary Escondido and associate pastor at New Life Presbyterian Church, shared their insights and experiences from ministering in their respective contexts.

A seminar exclusively for women was also featured during the conference, during which Christine Yi Suh, the assistant director for spiritual formation and care at Pepperdine University, shared her experiences, thoughts, and strategies in trying to thrive in her discipleship to Christ in the midst of the busyness of life.

The conference was co-hosted by seven local churches, including Good News Chapel, All Nations Community Church, Gospel Life Mission Church, Good Stewards Church,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and New Life Vision Church.

SUBSCRIPTIONS:
Don't miss out on the news!
For delivery subscription,
please e-mail us at
christianitydaily@gmail.com.

Korean Americans to Join in Prayer for the Nation

BY JUNHYEONG KIM
TRANSLATED BY RACHAEL LEE

Christians in various areas throughout the nation will be gathering on May 5 for the 65th annual National Day of Prayer. In Southern California, Korean American Christians will come together in Orange County for corporate intercession for the nation.

This year, the theme for the National Day of Prayer (NDOP) is 'Wake Up America,' and takes the first portion of Isaiah 58:1 as its theme verse: "Shout it aloud, do not hold back. Raise your voice like a trumpet." The verse in its entirety reads, "Shout it aloud, do not hold back. Raise your voice like a trumpet. Declare to my people their rebellion and to the house of Jacob their sins," the latter half which directly mentions sin and emphasizes the need for repentance.

The prayer gathering organized by the Korean church leaders will be taking place at 7:30 PM on May 5th at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and will be divided into worship and prayer portions, according to a press release.

Some of the topics that will be prayed over include repentance and revival; schools and families; churches, culture, and social justice; the President, elected officials, and the upcoming election; revival in the younger generation, student organizations, and missions; and the leaders in South Korea, and reunification in Korea, among others. Four to five speakers will be leading each prayer topic.

As the event is hosted by Korean church organizations in the Orange County area, most of those who are leading prayers are pastors ministering in Orange County.

Most of those who are leading prayers are also first generation Korean pastors, with only a few leaders who minister in the second-generation Korean American context such as Pastor Steve Choi from Crossway Community Church and Seong Joo Cho from SOON Movement.

Only one woman is featured as one of the speakers at the event.

The National Day of Prayer was initially called for by President Abraham Lincoln in 1863 when he proclaimed a day of "humiliation, fasting, and prayer," according to the NDOP Taskforce, and officially began when President Harry Truman signed a joint resolution passed by Congress in 1952.

Though the NDOP Taskforce was sued and the event was found unconstitutional in 2010, a decision by a federal circuit court of appeals reversed that decision in 2011. When President Obama also proclaimed a National Day of Prayer at the time when it was found unconstitutional, the status of the NDOP among the elected officials was also affirmed.

Elected officials from Southern California will also be prayed over during the event.

Gatherings of corporate prayer will be taking place in an estimated number of 42,000 different locations across the nation, and government officials in executive, legislative, and judicial branches will also be gathering at the Cannon House Office Building on Capitol Hill from 9 AM to 12 PM.



(Photo courtesy: PCA-CKC) About 50 pastors attended the PCA-CKC EM forum.

PCA-CKC Hosts Annual Forum for EM Pastors

BY RACHAEL LEE

The Presbyterian Church of America's Coalition of Korean Churches, also known as PCA-CKC, hosted its fifth annual forum for English-speaking pastors, this year at Sioam Korean Church of Atlanta.

Over 50 pastors attended this year's forum from various places throughout the country. Though the forum for the English-speaking (EM) pastors used to take place simultaneously with the Korean-speaking (KM) pastors' annual conference, this year the two groups have their gatherings separately. The forum for the EM pastors took place first from April 18 to 20, and the KM pastors will have their conference next week from April 25 to 28.

This year's forum also stands out from the previous four in that it featured the most speakers since the forum's inception, as well as

the most amount of PCA staff among those speakers. Lloyd Kim, the coordinator of the PCA's mission agency called Mission to the World; Stephen Estock, the coordinator of the PCA's Committee on Discipleship Ministries; Danny Kwon, the pastor of youth and families at Yueng Sang Presbyterian Church; Henry Koh, the coordinator of Korean ministries for the PCA's Mission to North America; and Min Chung, the senior pastor of Covenant Fellowship Church, who has also been featured as a speaker for all of the PCA-CKC's English-speaking pastors' forums, spoke during this year's event.

The forum, which was themed 'Making Disciples of All Nations: Discipleship and Missions in the Local Church,' started out on Monday by focusing on the role of the pastor, and then proceeded to discuss discipleship and missions during the second day. The last

day of the forum featured a session regarding leadership opportunities within the denomination.

The annual PCA-CKC's forum for English-speaking pastors began in 2012 with the aim to "encourage and strengthen PCA EM...

pastors, licentiates, and candidates for ministry through mentorship, discussion, and fellowship," and has explored such topics as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English Ministry,' 'Mentoring Men,' and 'The Heart of a Pastor.'

Korean Pastors' Conference to Feature Tom Mercer

BY RACHAEL LEE

A conference aiming to recharge pastors of Korean immigrant churches will be taking place from April 25 to 27, featuring Tom Mercer, the senior pastor of High Desert Church, as the main speaker throughout the conference.

"We desire to serve pastors with a time of rest and recharging," said the organizers. "We want to invite

and serve those pastors who are exhausted or burnt out, losing the passion that they first had when they were called as pastors."

The conference, which will be taking place at High Desert Church, is the ninth annual one hosted by Hanam Presbyterian Church in South Korea. For the past nine years, the church has been hosting this 'Happy Pastors Conference' to provide a time of

restoration for pastors of Korean immigrant churches in the U.S.

This year in particular, organizers expressed hopes that more Korean American pastors would attend, especially as the main speaker is Tom Mercer, the well-known pastor of High Desert Church, which consists of some 11,000 congregants.

Tom Mercer is also known for the 'Oikos Challenge,' a ministry

which promotes the idea of gathering with a small group of believers on a regular basis to build each other up in the faith.

Only the first 30 pastors to register will be able to attend, and those who register must pay a \$100 deposit that will be returned to them after the conference.

Those who are interested can contact Pastor Boo Hwan Kwak at 213-321-4433.

Local Churches and Ministries

Christianity Daily

A ministry through journalism

For questions about advertising and donations

T.(213)739-0403 F.(213)402-5136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1

T.(949) 385-3051 / www.ocbethel.com

Bethel English Church

PASTOR SUNG CHA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www.charis.church

Sunday Services: 9:30 AM & 11:30 AM
Sunday School: 11:30 AM
College Group Meetings: Fridays at 6 PM

PASTOR HAROLD KIM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T.(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Charis Mission Church

PASTOR HAROLD KIM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T.(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PASTOR HAROLD KIM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T.(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Flooding in Houston Kills at Least 5, Traps Residents in Homes, Automobiles

BY AMY KIM

On Monday morning, Greg Abbott, the governor of Texas, announced a state of emergency in Houston as rain poured down at rates as great as four inches an hour, inundating nine counties.

The floods have killed at least five people and trapped residents in their own homes and automobiles.

According to Judge Ed Emmet, Harris County's chief administrator, more than 1,000 homes were flooded in Harris County alone.

More than 70 subdivisions were flooded in the metro area. Emergency officials said as many as 60 water rescues were used by rescue workers to save people from their homes.

Houston Mayor Sylvester Turner claimed that eight buildings were destroyed by the downpour and left 43,000 civilians residing in the area deprived of electricity, according to CenterPoint Energy.

The people living in Greenspoint were immediately evacuated and transported to a mall. The city's emergency operation revealed in a statement that it was still carrying out a "large-scale effort" to help people who resided there.

In Magnolia County, just north of Houston, 50 high-water rescues had



(Photo: Todd Dwyer/CC) Floods like the one pictured here from 2009 happen relatively frequently in Houston. The most recent flood killed at least five people.

been operated since Sunday night at 10 p.m. Furthermore, dozens of horses were trapped in the flood and are being rescued.

"When you get off the freeways and off the main thoroughfares, you could be in water 10 to 15 feet deep," Fire Department spokesman Jay Evans told the Associated Press on Monday.

As reported by the National Weather Service, all rail and bus services at Metro Houston were shut down as the flood rose up to 16.5 inches off the

ground before noon.

George Bush Intercontinental Airport had recorded 8.85 inches of rain since midnight to 5:30 a.m. CDT. By 10:30 a.m. CDT Monday, more than 400 flights were cancelled as stated in the flight-tracking website FlightAware.

Jeff Linder, a meteorologist with the Harris County Flood Control District, warned residents that the current situation is a "life-threatening" one, and urged them "to stay where [they] are" until further notice.



(Photo: Agencia de Noticias ANDES/César Muñoz/CC) Volunteers observe the aftermath of the earthquake in Portoviejo.

Faith-Based Groups Offer Aid to Ecuador Earthquake Victims

Rescue and relief work continues in Ecuador in the aftermath of the most devastating earthquake in decades, which has claimed over 500 lives and injured more than 2,500, according to latest reports.

Many faith-based humanitarian agencies are sending disaster response teams to Ecuador to help find the survivors and provide food and shelter.

World Vision is one of the Christian charities that is helping the earthquake victims at the grassroots level. It has plans to reach up to 10,000 people in the most-affected areas along the country's north-western coast, and to distribute emergency items such as mosquito nets, hygiene supplies, and water treatment systems.

"This is the worst earthquake to strike Ecuador since 1979. It was a truly terrifying event felt across the country. The people of Ecuador spent a long, sleepless night worried about further shocks," said Jose Luis Ochoa,

World Vision's national director in Ecuador.

"Right now, our primary concern is ensuring the needs of children and their families are met. World Vision is in the process of setting up Child Friendly Spaces where children and young people can access psychosocial care and mitigate any emotional distress," he continued.

World Vision has worked in Ecuador for the last four decades, and promptly responded to the disaster by setting up two temporary shelters and giving out hygiene products, food, water, and other necessities.

Samaritan's Purse, another Christian charity, is covering the devastated regions by sending specialists and medical personnel via three DC-8 cargo planes, which will also carry 40 tons of emergency supplies.

The group will build shelters to house at least 5,000 people, set up a mobile hospital to see up to 100 patients a day,

and will seek to bring clean water to 50,000 residents.

"The earthquake in Ecuador has caused incredible death, injury, destruction, and loss. We're responding as quickly as possible to help with emergency needs such as water, shelter, and medical care. We help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nd want to show people His love. Please keep them in your prayers," said Samaritan's Purse President Franklin Graham.

MAP International, a global Christian health and relief organization, will be supplying shelter and medical needs, including standardized emergency health kits designed specifically for disaster victims.

Meanwhile, Ecuadorian President Rafael Correa told reporters that it could take \$3 billion to rebuild the country, which is 3 percent of the nation's gross domestic product.

"It's going to be a long battle," he said.

American Evangelist Released from Detainment in Turkey

An American missionary who was briefly detained in Turkey for being a "danger to public order" has been released.

David Byle, 46, was released on April 14, but still faces threat of deportation, despite the fact that he has a residency permit that he received last year.

Authorities had tried to deport him several times before, according to a report by *BosNewsLife*.

He was detained on April 6 and a "no-reentry order" was filed against him. His wife said that the charges against him of allegedly disturbing public order were false. She said in a statement that "the reason he is being held is because of his evangelistic activities."

"Praise God, I was released from the deportation center this afternoon,

and just arrived home," David Byle wrote on Facebook. "Thanks to all who prayed and did advocacy for me, also to my tireless lawyer and most of all to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who never left my side, and never will."

Byle was the first missionary to have fought and won a lawsuit over his residency. The lawsuit lasted five years.

He was first arrested in Istanbul in April 2007 for "forceful missionary activity," and "aggressive evangelism" but the first charge of missionary activity was dropped the next month as it is not a crime in Turkey. In November that year, the other charge was also dismissed as the law relates only to selling goods or services aggressively, and evangelism does not fall under this criteria.

He also founded an organization called the Bible Correspondence

Course (BCC) in Turkey, which was attacked in 2014. Thousands of New Testaments were burned in the attack.

Then again in February 2009, he was detained along with several other members of BCC, all of whom were forced to provide written statements before being released.

Even in the midst of trying circumstances, Byle remains thankful, according to his wife. She recalled Byle saying, "I am just so thankful to the Lord," before his release.

"He's a very bold person, and I look up to him," a leader (who requested anonymity) at US-based International Christian Response (ICR), an agency that provides aid to persecuted Christians, was quoted as saying by *Morning Star News*. "I wish there were more people like him."

Sunday Services: 9 AM & 11:15 AM
Children's Ministry: 9 AM & 11:15 AM
Youth Group Service: Sundays at 11:15 AM

PASTOR KEITH PARK



Church of Southland
1380 S. Sanderson Ave, Anaheim, CA 92806
T. (714) 209-7349 / churchofsouthland.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Brea Campus Service Times: 9:30 AM, 11:30 AM
PASTOR STEVE CHOI
Irvine Campus Service Time: 10:30 AM

Crossway Community Church
Brea: 695 Madison Way, Brea, CA 92821
Irvine: 100 Honors, Irvine, CA 92620
T. (714) 529-5551 / crossway-church.com

Sunday Services: 9 AM & 10:45 AM
Children's Ministry Services: 9 AM & 10:45 AM
Youth Services: Sundays at 9 AM, Wednesdays at 6:30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0:45 AM

PASTOR TIM PARK

Evangelical Free Church Diamond Bar
3255 S. Diamond Bar Blvd, Diamond Bar, CA 91765
T. (909) 594-7604 / www.efreedb.org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to Young Adults): 7:30 P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org

Sunday Services: 9 AM & 11 AM
Bible Studies: Wednesdays at 7 PM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PASTOR SAM KOH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909-9062 / www.hillsidela.org

Sunday Services: 9:45 AM

PASTOR PHIL KIM

The Home Church
19271 Colima Rd, Suite A/B,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384-1393 / thehomechurchrowland.com

Sunday Services: 11:30 AM

PASTOR HENRY LEE

Crossroads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lafgc.com

Sunday Services: 9 AM & 11 AM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PASTOR STEVE CHANG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Sunday Services: 10: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0:30 AM, 12:15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2:15 PM

PASTOR KIWON SUH

New Life Vision Church
4077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323) 373-0110 / www.nlvc.org

Sunday Services: 8:30 AM, 9:45 AM & 11:15 AM

PASTOR PAUL KIM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1831 South El Camino Real Encinitas, CA 92024
T. (760) 753-2535 / www.redeemersd.org

Sunday Services: 1 PM
Youth Group Services:
Sundays at 11 PM, Thursdays at 7 PM

PASTOR DANIEL HAN

Restore Fellowship
2525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 www.ladongsan.com

Broadway Campus Sunday Services:
9:45 AM, 11:15 AM, 12:45 PM

PASTOR MICHAEL LEE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Broadway: 1721 North Broadway, LA, CA 90031
Jefferson: 150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T. (323) 227-1414 / www.ynccla.org

72개월까지
0%이자 가능

PH
PuenteHillsHyundai
SUPER STORE

새 봄 맞이 SALE

NEW
2016 HYUNDAI
ELANTRA SE

Lease It For **\$58** +Tax

All In Stock With
MSRP **\$19,375**

36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Signing, \$2,000 Lease Cash, \$500 Competitive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THE EXCITING APPEAL OF ELANTRA SPORT"



NEW
2015 HYUNDAI
SONATA SE

"DESIGN RENEWED BY INNOVATION"

Lease It For **\$8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2,87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50 Due At Signing, \$2,000 Lease Cash, \$500 Competitive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NEW
2016 HYUNDAI
EQUUS SIGNATURE

Lease It For **\$399** +Tax

All In Stock With
MSRP **\$62,450**

All In Stock
36 Months Closed End Lease, \$5,999 Due At Lease Signing, Lease Cash \$8,500, Competitive Owner Coupon \$1,5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Grad Rebate \$400,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A PERFORMANCE VEHICLE WRAPPED IN LUXURY"



NEW
2016 HYUNDAI
GENESIS Signature Package

"It's an honor to be nominated 2015 North American Car Of The Year Finalist"

Lease It For **\$239** +Tax

All In Stock With
MSRP **\$43,785**

36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Lease Signing, \$2,500 Lease Cash, \$1,000 Competitive Owner Coupon, Military Rebate \$500, College Grad Rebate \$400,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찰리 정

626.513.4981



스티브 장

626.723.3336



저스틴 길

626.723.3584

HYUNDAI

1-888-644-7114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See dealer for LIMITED WARRANTY details.

HYUNDAI
Assurance

